

순천만 습지, 세계를 부른다



람사르 총회 공식 방문지... 친환경 브랜드화 전략 수립 전남·경남도·순천시 '생태관광 상징 사업 등 협력 협약'

순천시가 오는 10월 28일~11월 6일까지 10일간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제10차 람사르(Ramsar)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순천만 브랜드화 전략을 수립,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생태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시는 1일 오전 세계 람사르총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전남도·경남도와 공동으로 '흑두루미와 함께하는 2008 순천만 신년맞이 행사'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호 경남지사,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시민 등 수백 명이 참석, '2008 람사르 총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남해안 공동 발전과 영·호남화합을 다짐했다.

또 양 시·도와 순천시는 이 자리에서 람사르 상징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3개 기관은 람사르습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식증진사업 ▲습지 인식 네트워크(경남도민 및 전남도민 상호 습지 교류 방문) ▲람사르 총회 외국어 해설사 운영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순천만 람사르습지 주변 유해시설 정비에 대해 ▲순천만 람사르습지내 유선을 생태탐사선으로 교체 ▲순천만 인근 식당 정비 지원 ▲순천만 입구 도로 정비 및 람사르습지 안내판을 설치 할 예정이다.

연안 습지로는 국내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은 경남 창원시의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지와 함께 올 람사르총회 공식방문지에 포함돼 세계 165개국에서 2천여명이 방문하게 된다.

순천시는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생

태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순천만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종합계획은 '인간과 습지의 공생'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관광과 생태적 가치의 증진에 바탕을 두고 인간과 순천만 연안습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한 생태관광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안습지 훼손 억제, 보호지역 관리 강화, 주민생활 여건 개선,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안습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순천만 연안습지 생태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백서 발간은 물론 자연학습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민간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참

여하는 조직도 꾸렸다. 지난해 4월 27명으로 '자연생태위원회'를 구성, 생태보존 방안과 관광콘텐츠 사업 발굴에 나섰다.

또 '갈대 넘어 세계로 순천만 Dream 모임' '순천만 스토리텔링 자원조사'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순천만습지 자연해설사 양성사업' '순천만 흑두루미 분산정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순천시 순천만보전과 이기정 계장은 "순천만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바닷가 생물생태자원 중 최우수경관 감상형 관광지라 별칭 정도로 생태환경이 잘 갖춰진 곳"이라며 "람사르 총회와 종합계획 추진을 계기로 관광객 유입은 물론 다큐멘터리 촬영 등으로 브랜드 가치와 친환경 이미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순천시와 전남도, 경남도는 1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서 '2008 세계 람사르총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흑두루미와 함께하는 2008 신년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박준영(왼쪽에서 두번째)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람사르총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형 연을 날리고 있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람사르 총회 올 10월 창원서 개최

'건강한 습지, 인간' 주제 165개국 2,000여명 참석

세계적 환경 이슈 기후 변화·습지문제 등 논의

오는 10월 28일~11월 6일까지 10일간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10차 총회에는 165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NGO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가입했고 현재 5개의 습지(용늪, 우포늪, 장도습지, 순천만, 물영아리)가 등록돼 있다.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제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주제에 맞게 조류독감에 관한 내용

을 비롯해 세계적인 환경이슈인 기후 변화와 습지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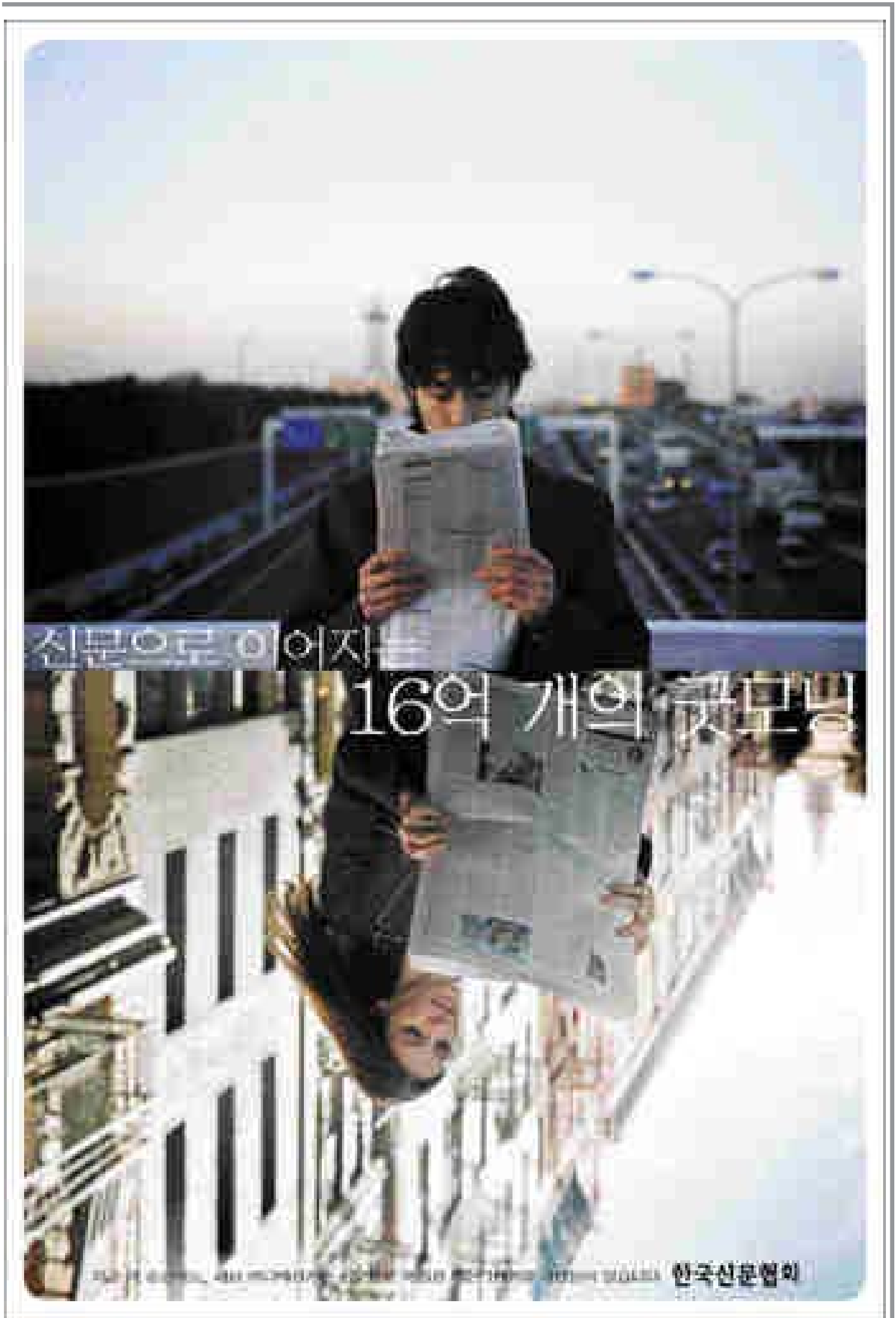
또 총회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만큼 눈이 맞는 습지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습지보전을 위한 지역의 노력, 생태적 기능, 습지와 문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참가자들은 우포늪과 순천만갯벌 등 생태환경을 돌아보며 습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당사국 및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결의문 초안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정책 결의문 ▲협약의 사업계획, 전략계획,

예산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역회의에서는 ▲지역의 관련 논의 및 의결 ▲지역이행 이슈관련 논의와 토론을, NGO회의에선 ▲NGO 차원의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결의문 논의 및 토론을 벌이게 된다.

부대행사로오는 10월 27일 창원시 CECO 전시장 및 창원전문대 강당에서 전야 리셉션을 시작으로 북한대표 초청 오찬, 람사르사무국 리셉션 등이 진행된다. 11월 4일부터는 공식투어·비공식투어로 나눠 내륙과 연안습지(순천만)를 연계한 코스를 돌거나 서·남해안 연안습지와 관광지를 연계한 투어를 진행한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람사르 협약이란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해안도시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써, 습지의 침식과 손실을 막고, 이들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 특히 물새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람사르협약이 규정하는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

갯벌·호수·해안 등 자연생태계 보전

1971년 이란 람사르서 채택된 국제협약

에 관계없이 높이나 못,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된다.

현재 157개국이 람사르협약에 가입했으며 약 1천650개 습지가 람사르습지(Ramsar List)로 등록돼 있다.

람사르협약 당사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해 람사르습지로 등록해야 하며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면서 람사르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순천시 순천만 갯벌을 비롯, 신안군 장도습지, 경남 창원군 우포늪, 제주도 물영아리 오름 등 5개의 습지를 람사르협약에 등록한 상태다.

람사르총회는 3년에 한 번씩 열린다. 지난 9회 총회는 2005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됐고 10회 총회는 오는 10월 28일~11월 6일까지 10일간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게 된다.

흑두루미·황새 등 희귀조류 11종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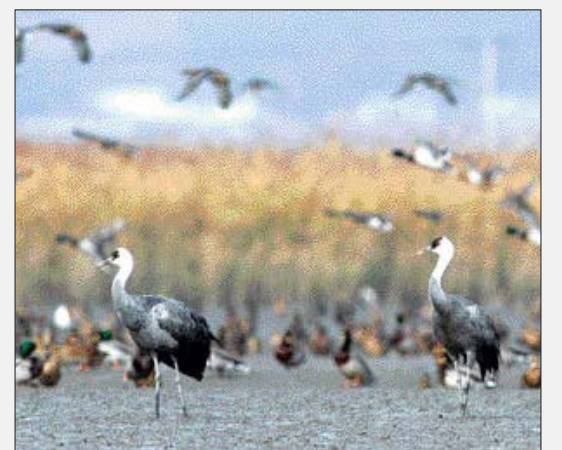
2006년 연안습지 국내 첫 람사르 등록

■순천만은?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한 순천만은 행정구역상 순천시와 고흥군, 여수시에 둘러싸여 있다. 넓게는 길게 뻗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에워싸인 큰 만 전체를 가리키며, 좁게는 순천시 인안동·대대동, 해동면 선화리와 상내리, 발랑면 우산리·학산리·무풍리·마산리로 둘러싸인 북쪽 해수면만을 일컫기도 한다.

행정구역상의 해수면만을 따진다 해도 75km가 넘는 매우 넓은 지역이며,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의 면적만 21.6km로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하다.

지난 2003년 12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 1월 연안습지로는 국내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순천만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생물종의 보고로 연구 가치도 높아 주목을 받고 있다.

오염원이 적어 갯벌·염습지가 잘 발달돼 있고, 질 좋은 수산물과 각종 저서무척추동물·염생식물이 풍



부하다.

특히 5.4km에 달하는 갈대군락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황새·저어새·노란부리백로 등 국제적 희귀조류 11종과 한국조류 200여 종의 월동 및 서식지가 되고 있다. 람사르습지 등록요건은 희귀조류 1종 이상(전체 숫자 중 1% 이상)만 있으면 되지만, 순천만은 흑두루미·저어새 등 5종 이상이 살고 있는 희귀 철새의 보고이다.